

***실내공간 맥락에서 본 한·중·일 전통수납가구 특성 비교연구

Comparative Analysis on Design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Storage Furniture in Interior Context of Korea, China and Japan

김국선* / Kim, Kook-Sun
이연숙** / Lee, Yeun-sook

Abstract

The cultural identity of each nation has appeared as a major issue in this multi-cultural era, and needs to define It clearly through comparisons with other cultures have been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on design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storage furniture in interior context of Korea, China and Japan.

Comparative analysis of traditional furniture was conducted in two terms, in terms of inner space, first, spatial elevation and front patterns, second, flooring materials of the interior space and types of furniture legs. Result of first comparative analysis showed that composition of windows, one of the major decorative elements of interior space, positively influenced on furniture, and reflected unique patterns of each country. Second comparative analysis showed that structures and shapes of traditional furniture vary depending on flooring materials. As a result of it, Korean furniture has the structure of 'punghyeol' and Chinese furniture has the structure of 'aja' with 'takni', a combination of legs. In contrast to the two countries, Japanese furniture has rarely legs.

The result of analysis is expected to act a role of establishing the cultural identity of our own country.

키워드 : 전통주택, 전통수납가구, 한국가구, 중국가구, 일본가구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현대사회는 세계화 속에 지역화라는 상이한 현상의 공존과 서양 중심적 사상의 한계로 동양의 사유 체계와 사상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다국적 문화의 시대로써 전통의 문화적 정체성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문화란 독자성을 갖는 주체로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문화권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자국적 정체성을 명확히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세계 속에서 아시아의 문화를 알리는 적극적인 노력은 주체인 동양 각국의 몫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문화의 비교는 상대적인 정체성을 논하는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생활에 밀착된 가구는 현대의 삶 속에서도 전통을 표

현할 수 있는 매우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올바른 이해와 해석에 따른 반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실례를 서구 지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경험하고 직접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실내공간의 맥락에서 전통 수납가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는 비교문화학¹⁾적 관점에서는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독자적 정체성 확립을 이루는 것이고, 실내공간학적 측면에서는 체계적이고 단독적인 전문영역으로 자리매김하는 주요한 시점에 세분화된 영역으로써의 실내공간과 가구 관련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용학문적 역할로는 자국적 정체성을 갖는 실질적 가구 디자인 개발이나 가구관련 공간 계획에 한국적 조형 특징을 표현하는 올바른 지표를 발견하는 것이다.

1) 비교문화는 영어로 cross-cultural, cross cultural로 표기하고 비교문화, 교차문화, 이문화간, 문화간, 다문화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1990년 설립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원의 부설 비교 문화 연구소는 '비교문화'로 번역하고 있다

* 정회원, 김포대학 실내디자인과 조교수, 이학박사

** 부회장,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ph. D.

*** 본 논문은 2004년도 김포대학 연구지원비에 의해 이루어졌음.

1.2. 연구 범위

한·중·일 삼국의 전통가구 중에서 가장 발달한 유형인 전통 수납가구를 대상으로 실내공간과의 연계성을 통하여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본 연구는 경제력의 발전과 더불어 각 나라의 문화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인 16세기를 시작으로 1900년도까지로 시대적 기준 범위를 정하였다. 이는 한국의 조선시대(1392-1897)와 중국의 명·청시대(1368-1911) 그리고 일본 에도시대(1603-1867)로, 각 지역의 대표적 전통주택을 선정하여 실내공간에서 사용되어진 수납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연구의 시대적 범위: 한·중·일의 비교 선정기준

선정기준	한국	중국	일본	선정이유
시대	조선시대	명·청시대	에도·메이지시대	경제부흥의 시기
지역	서울	북경	교토·동경	행정중심지역
주택	반가	사합원	마치야	대표적 주거양식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내용 분석방법(Content Analysis)³⁾을 주된 방법으로 채택하여 진행하였다.

모든 과정에서 한·중·일 삼국의 비교가 이루어지며 이론적 배경의 전통주택 실내공간과 가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기초로, 크게 2단계의 맥락 속에서 전통가구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다.

가구는 실내공간의 주요 구성요소로, 주로 벽을 배경으로 하고 바닥에 배치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실내공간을 형성하는 바닥, 벽, 천정 면 중에서 바닥과 벽면과의 연계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시각적 조형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입면성 측면에서의 특성을 1단계로, 바닥재료의 특성에 따라 형성되는 전통가구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하는 2단계의 분석을 진행 하였다.

2. 이론적 고찰

전통 수납가구의 특성을 실내공간 맥락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전통주택의 특성과 각국 전통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문헌 고찰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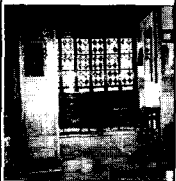

2.1. 한·중·일 전통주택 특성

한·중·일 전통주택의 특성은 그 분석 기준으로 공간구성

과 실내공간 특성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공간 구성의 특성은 각국의 공간 간의 구성과 공간 간의 처리 방식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비교하여 <표 2>로 정리하였다.

<표 2> 한·중·일의 전통주택 공간 구성 특성

분석기준	한국	중국	일본
공간 간의 구성	각 체의 공간 간 열개 창호 구성 뒷마루, 대청 등의 매개공간 구성	건물과 중정 사이의 회랑이 연계공간 구성	공간 간 미세기문 구성. 자연과 적극적인 상호작용. 건물 주변 베란다 연계공간구성
공간 구성 특성	공간 간의 처리 방식	분합문, 미세기문 개폐에 따라 방의 통합과 분화 가능.	나무 경량 칸막이 구성 해체 및 설치 가능.
이미지			
	출처 : ana.hannam.ac.kr	출처 : 개인 촬영	출처 : Koji yaki, A Japanese touch for Your Home, p.62

한·중·일 전통주택의 실내공간 특성을 실내공간 구성요소와 가구 및 배치로 나누어 그 특성을 <표 3>으로 정리하였다.

<표 3> 한·중·일의 전통주택 실내공간 특성

분석기준	한국	중국	일본
실내 공간 구성 요소	단순면 구성. 대청 천장은 구조 노출 연등천장, 벽은 거의 모두 창호, 바닥은 마루 구성.	중정 쪽 벽은 개구부 커다란 두루마리 그림과 주변에 대련을 붙임. 바닥은 석판.	한쪽 벽에 도쿄노마라는 벽감장식 외에는 일체의 장식을 하지 않음.
가구 및 배치	좌식생활가구 고착형배치, 단아한 비례와 짜임새, 소박한 금구장식	입식가구 1쌍의 대칭적구성 엄격한 획일성과 일체감 추구	가구는 거의 없고, 고정되어 있지 않아 가변적 이동성 지님
실내 공간 특성 이미지			
	출처 : 개인촬영	출처 : 개인촬영	출처 : ana.hannam.ac.kr
이미지			
	출처 : ana.hannam.ac.kr	출처 : 손세관, 깊게 본 중국의 주택, p.53	출처 : Koji yaki, A Japanese touch for Your Home, p.64

2.2. 한·중·일 전통가구 특성

전통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가구재·구조이음과 짜임·도장

2)현재 불리워지고 있는 도시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3)내용의 특성한 속성이나 측면을 객관적,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관측 연구 방법을 의미한다.

마감·문양장식·금구장식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한·중·일 삼국의 가구재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는데 중국은 고급 가구재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였고, 한국과 일본은 주로 국내산 수종만으로 가구를 제작하였다. 대표적 가구재로는 한국에서는 오동나무와 느티나무 소나무 등을, 일본에서는 노송나무와 삼나무를 들 수 있고, 중국에서는 화리목이나 자단을 지명할 수 있다.

구조이음과 짜임으로는, 외형적으로 중국의 가구는 전면에 넓은 판재와 기둥으로 구성된 반면, 한국의 가구는 쇠목이나 동자 등의 골재로 전면을 분할하여 머름간이나 쥐벽간 복판등 좁은 면들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면분할은 나무의 수축팽창의 결점을 막아주는 물론, 작은 크기의 판재여서 아름다운 목리를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또 얇은 판재로도 골재에 의지하여 힘을 받기에 충분하므로 가구의 하중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한국적인 독특한 비례감각으로 발전하여 그 선과 면의 배분은 가구 뿐 아니라 실내공간에도 적용되어 어떠한 공간이나 주택 양식에도 잘 어울리는 미적 감각으로 발전하여 오늘날까지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삼국이 갖는 공통점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값싼 목재를 숨겨 쓰지 않는다는 점과 필요시 최소한의 접착제만을 사용하고 쇠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가구의 구조를 비교하면, 중국의 가구는 대개 3중구조로 짜여져 정교하며 기교적인데 비해 한국의 가구는 2중구조로 짜여지는데, 일본의 가구는 판재에 각재를 덧붙이는 식의 2중구조를 사용함으로써 가구자체의 견고함을 피하는 동시에 일본적 조형으로 발전시켰다

도장마감은 나무의 자연 목리문을 살리는 가구가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서민 중심으로 사용되었고, 일부층에서 불투명도장의 칠기가 사용되었다. 특히 일본의 마끼에 기법의 도장마감과 중국의 가구에 나타나는 칠기법에서는 다양한 색과 마감 기준에 따른 칠가구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은 재료나 형태의 무작위적인 자연미감에 그 가치를 부여하였다면, 일본은 의도적 세련된 자연미를 추구하는 유미주의적 조형의식과 미적감각을, 중국은 과시적 장식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장식표현상의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도장 기술의 발달정도에 따라 마감 표현이 다르게 나타난 점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양장식은 공통적으로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재를 사용하였고, 이는 자연이나 신에 대한 숭배사상에서 모든 장식의 개념이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장식 문양에서도 남녀의 구분이 뚜렷하고,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남녀의 구별이 없다. 이러한 장식과 문양의 형태와 표현 기술은 중국의 가구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나타난 반면에 한국은 소박한 느낌의 처리로, 일본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반영되었다.

금구장식의 재료는 주로 놋쇠와 백동이 사용되었는데 한국에서만 사용되어진 거머쇠의 자연스럽고 조출한 의장은 한국의 풍토적인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다. 형태로는 삼국 모두가 기하학적 문양과 자연적 문양, 의식화된 문양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제작기법은 금속괴를 망치로 두드려서 형태대로 오려서 만드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삼국 전통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주구조재·이음짜임·도장마감·문양·금구장식으로 나누어 <표 4>로 정리하였다.

<표 4> 한·중·일 전통가구의 일반적 특성 비교

일반적 특성	한 국	중 국	일 본
주구조재	오동나무 자작나무	자단(Tzu-Tan) 홍목(Hong-Mu) 계취목(Chi-Chih mu) 황화리(Huang-Hua-Li) 노화리(Lao-Hua-Li)	노송나무 삼나무
이음·짜임	골재 분할 구조	기둥과 판재 구성	골재와 판재 복합구조
			
도장마감	식물성유지 투명도장 마감	다양한 색, 도장기술	투명도장 마감·'마끼에'기법
			
문양장식	자연물대상	자연주의적 회화적 표현	자연물대상·상징성 사실묘사
			
금구장식	의식화된 관념적 장식	장식적 화려한 장식	사실적 문양 단순기하학적장식
			

3. 실내공간 입면성과 전통 수납가구의 조형 특성 비교

주택 내에서의 창호⁴⁾는 주택의 외부와 실내를 이어주는 구성요소로 입면적 조형 이미지가 주택 내외부의 연계성을 갖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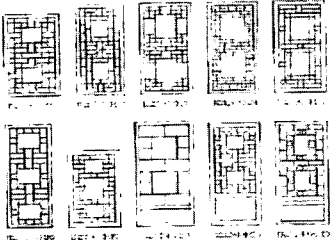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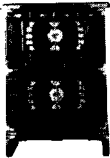



다. 이는 실내공간에서의 구성요소인 전통가구에도 반영이 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삼국 전통가구의 조형적 특성이 주택 실내공간의 입면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지 규명하였다.

3.1. 한국의 면·선적 구성

한국의 창호는 건축 입면 의장의 특징적 요소⁵⁾로, 조선시대에는 용(用)자살, 띠살, 아(亞)자살, 완자살 같은 단순하면서도 아기자기한 문양이 주로 사용되었다.⁶⁾

본 연구에서는 한국 만의 독특한 분할 비례 조형미를 지닌 아자창살을 대표적 창호로 선정하여 전통가구의 전면에 반영된 사례를 <표 5>로 정리하였다.

<표 5> 한국 창호와 전통가구 전면 조형특성

한국 아자창살 ⁷⁾		
한국전통 수납가구의 전면 조형	 2층장 출처 : 김삼대자, 전통 목가구, 대원사, p.43	 3층장 출처 : 김삼대자, 전통 목가구, 대원사, p.99
	 농 출처 : 김삼대자, 전통 목가구, 대원사, p.57	 4층 화각장 출처 : Edward Reynolds Wright, Man Sill Pai, Korea Furniture, p.31

한국 전통주택의 입면에 배경으로 인식되는 창호 분할 구성이 전통가구의 전면성으로 적극 반영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면분할은 단순한 장방형의 외형을 가진 수납가구의 전면을 변화와 리듬감 있는 구성미로 보완하고 있다. 이는 좋은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당시의 재료 수급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후적 특성인 사계절 온도변화에 의한 목재의 변형을 막

기 위한 구조로써, 실용을 바탕으로 한 조형미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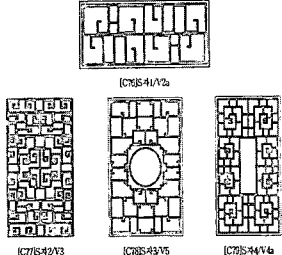




3.2. 중국의 장식적 구성

중국의 실내공간 입면의 장식성은 명대에 이르러 숙련된 기술로 완벽하고 섬세하게 칠가구와 더불어 우아한 경지에 이른다.⁸⁾

창호와 창살의 형태도 매우 다양한 시도와 교차되는 형태를 많이 사용하여 디자인은 점점 더 복잡하고 장식이 많아지게 되고 실내외에서 그 장식성을 공유하여 공간 구성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더욱 강조하는 장식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분산된 구도를 통일하기 위하여 장식적 요소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건축물의 주변, 재료가 만나는 곳, 강조가 필요한 부분에 장식을 가하여 주제를 부각시켜 주변과 두드러지게 하고 구조의 작용을 중복하게 하였으며, 두개의 분리된 물체를 장식을 통하여 합일에 이르도록 하였다.

<표 6> 중국 창호와 전통가구 전면 조형특성

중국 S자 소용돌이형 창살 ⁹⁾		
중국 전통 가구의 조형	 출처 : 中國明清家具目録, 南方出版社, p.335	 출처 : 中國明清家具目録, 南方出版社, p.337
	 출처 : 中國明清家具目録, 南方出版社, p.187	 출처 : 중국명칭 목가구(상), p.106

중국 실내공간에서 나타나는 창살의 형태는 투각의 방법과 형태가 잘 반영되도록 전통가구의 전면성 보다는 <표 6>과 같이 입면에 여러 형태로 나타내는 가구의 장식적 요소로 활용되었다.

3.3. 일본의 기하학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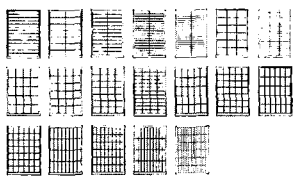




일본의 전통 창살인 '쇼지(shoji)'¹⁰⁾는 실내공간을 구획하는

8)미셀 피르들리, 김삼대자, p.46
9)박지연, Op. cit., p.67
10)일본 미단이식 종이 파넬에는 쇼지(shoji)와 후수마(fusuma)라는 두가지의 유형이 있다. 모두 사각형의 비교적 단단한 구조로 형성된 프레임

주요한 요소로 공간 입면조형의 의존도가 높다. 수평제와 수직제로 구성된 경량 부재 프레임이 일정한 두께로 각아 구미코(kumiko)라는 가는 막대로 구성된 격자를 지지하는 시각적으로 매우 강한 기하학적 효과를 지닌다.

쇼지 스크린은 트랙을 따라 미닫이식으로 구성되며 방과 외부 배란다 사이에 위치한다. 그 외에 창문이나 캐비닛 문 등에도 사용되며 사용 목적에 따라 구성 방식을 달리한다. 통행량이 많은 곳에는 하단부에 가로 널을 대고, 외부조경을 보기 위해서는 가운데 유리를 넣거나 부분적인 미닫이 문을 내기도 한다. 이렇듯 강한 시각적 중심이 되는 쇼지의 기하학적 이미지로 구성된 실내공간의 입면성이 일본의 전통가구에 반영된 예를 <표 7>로 정리 하였다.

<표 7> 일본 쇼지와 전통가구 전면 조형 특성

일본 기본 그리드형 창살 ¹¹⁾		
일본 전통 수납가구의 전면 조형	 Choba-dansu	 Choba-dansu
	출처 : Kazuko Koizumi Traditional Japanese Furniture, p.30	출처 : Kazuko Koizumi Traditional Japanese Furniture, p.30
	 ko-dansu	 Kuruma-dansu
	출처 : Kazuko Koizumi Traditional Japanese Furniture, p.23	출처 : Kazuko Koizumi Traditional Japanese Furniture, p.33

단순미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의 실내공간은 전통 창살인 쇼지가 갖는 기하학적 특성이 실내 공간에서 나타나며, 이는 전통가구의 전면성에 그대로 반영된 예를 찾을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의 분할 비례미의 선과 면 구성이 전통가구의 전면성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점과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통판의 휨과 뒤틀림을 막기 위해 판재에 각재를 덧붙이는 이중구조를 사용함으로써 가구 자체의 견고함을 꾀하는 동시에 일본 특유의 기하학적 조형성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한·중·일의 실내공간의 장식적 요소인 창호의 입면적 구성이 실내공간의 구성요소인 가구에 반영되어 나타나

에 경량 목재구조로 이루어진 골격을 지닌다. 쇼지는 반투명한 종이 한쪽 면에 붙는 반면, 후수마는 두껍고 불투명한 종이 양쪽 면에 부착된다.

11)박지연, Op. cit., p.67

는 사례를 알아보고 그 의장 특성의 연계성을 시각적 자료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주거문화의 실내장식 특성과 전통가구의 조형 특성의 연계성에 의해 삼국의 독자적 정체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그 상이성을 아래 <표 8>로 정리하였다.

<표 8> 실내 공간 입면과 전통가구 장식 특성의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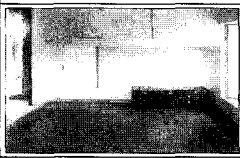


	한국	중국	일본
실내공간 입면요소	선과 면 분할구성	장식적 구성	기하학적 패턴 구성
전통가구 반영 방식	가구의 전면 처리	전체적 장식처리	가구의 전면 처리
연계성	전면성	전면·측면·배면등의 입면성	전면성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건축의 특징적 입면의장(立面意匠)인 창호의 형태가 실내공간 주요 구성요소인 가구에 적극 반영되어 실내공간의 입면 조형을 형성하고 있는 삼국의 공통점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반영 특성에서는 각국의 생활 행위에 따라 평좌 생활 가구인 한국과 일본의 전통가구는 전면성이 강조되어 조형미를 구성하는 요소가 가구의 전면면에 강하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입식 생활 가구인 중국의 경우는 가구의 전면외에 옆면과 배면까지도 그 조형적 요소가 적용되어지는 상이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4. 실내공간 바닥재와 전통 수납가구의 다리 구조 특성 비교

한·중·일 삼국의 주거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바닥의 재료가 자연환경과 주택 양식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가구가 주로 놓여지는 공간인 한국의 ‘방’은 온돌구조의 평좌 생활의 장판으로, 중국의 ‘당’은 입식생활의 돌이나 흙으로 된 판을 사용하였고, 일본 ‘실’은 규격화 되어 있는 다다미로 바닥재료가 구성 되어 있어 <표 9>과 같이 그 재료마다의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표 9> 한·일 실내공간의 바닥재와 그 특성

	공간	바닥재	특성	이미지
한국	방	장판	바닥구조인 온돌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장판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열과 습도 등에 대응하는 내수성을 갖는 바닥재이다.	
중국	당	석판 흙판	입식생활로 바닥의 재료는 돌이나 흙으로 만든 판으로 구성되어, 단단하고 부딪혀서 마모나 파손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일본	실	다다미	짚이나 골몰로 만든 매트 형식으로 탄력이 있다. 온도나 습도의 변화에 비교적 안정적 재료이다. ¹²⁾	

4.1. 한국의 전통 수납가구 다리구조

한국의 경우 온돌에서 생성되는 열을 분사시켜 실내의 온기를 조절하고, 실내에 조성되는 습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풍혈구조¹³⁾가 생성되었다.

조선조 목가구의 특징인 ‘간결한 형태’와 ‘직선구조의 면분할’ 속에서 전체의 조형을 깨트리지 않고 경직된 몸체와 대비되는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로 조각된 풍혈은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습기나 열기가 직접 가구에 닿지 않도록 공간을 띄운 다리 사이에서 목조 건축의 보아지¹⁴⁾와 같은 구조적 역할을 하는 보강재였으나 무엇인가 덧붙이고 장식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에 의해 다른 몸체에 비해 장식적으로 변화되어 나타났다.¹⁵⁾

풍혈은 크게 다리나 기둥부분에 판재를 조각하여 붙이는 기본형과 가구의 받침다리 전체를 구성하여 따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마대형의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외에 보아지형 풍혈은 목조 건축의 보아지 구조의 형태를 반영한 것이며, 죽절형 풍혈은 호랑이의 다리 형태에 대나무를 잘라 붙인¹⁶⁾ 듯한 양식으로 서안에 많이 나타난다. 판각형 풍혈은 판재로 된 측판에만 나타나는 형태로, 가구의 어두운 측판 부분에 선명하고 단순한 선으로 풍혈을 이루어 다리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다.

4.2. 중국의 전통 수납가구 다리구조

중국의 경우는, 바닥재가 단단한 특성에 따라 가구의 주재료인 목재가 부딪혀 파손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입식가구로써 이동성을 지니는 가구에 견고함을 부여하는 다리 구조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풍혈과 비유되는 아자¹⁷⁾(牙子)로써 가구의 기둥과 쇠목사이에 부착되어서 연결부를 보강시켜 주고 골조구조를 튼튼하게 잡아주는 보조재이다.¹⁸⁾

중국 전통가구에는 장식성을 갖는 특성에 의해 다양한 구조와 형태의 아자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바닥재와 연계하여 견고성에 입각한 구조적 기능면에서의 아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크게 면재구조¹⁹⁾와 선재구조²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며, 일반적 형태는 무속요(無束腰) 구조와 유속요(有束腰) 구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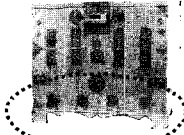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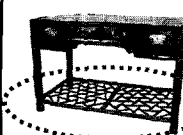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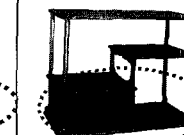



나눌 수 있다. 무속요(無束腰) 구조는 요대(腰帶)가 없이 아자가 단순한 장부짜임으로 직접 다리와 접합되는 구조이고, 유속요(有束腰) 구조는 요대가 있는 구조로 주로 다리가 각형이며 다리하부에 마제(馬蹄)와 탁니[足臺]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치밀한 구조의 형성은 명과 청시대의 가구가 양질의 경질목으로써 비교적 작은 부재의 단면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정밀한 짜임도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입식으로 사용되어지는 중국의 거의 모든 가구에서 각각의 가구 구조와 형태에 따라 아자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동성과 사용의 빈도가 높은 의자나 장식대의 경우 다리와 다리를 서로 연결하는 부 구조체인 탁니[足臺]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장식적 기능에 우선하는 보강의 구조적 기능을 갖는 요소로 공간의 바닥재료인 석판이나 흙판 등과 관련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4.3. 일본의 전통 수납가구 다리구조

일본은 다다미가 갖는 탄력성으로 인해 가구의 다리가 생성되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 안정감을 잃게 되므로, 실내공간에 놓여지는 대부분의 수납가구에서는 부착된 다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중국과 한국을 통해 전래된 양식에 기초를 두고 발전해온 일본 가구에 다리의 구조가 남아 있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제작된 경우는 드물다. 즉, 일본의 전통가구는 안정적 배치를 위해서²¹⁾ 실용적인 측면에서나 다리는 불필요한 구조였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수납가구가 필요에 따라 포개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과도 연관지을 수 있다.

<표 10> 한국 중국 일본 전통 가구의 다리구조 특성

한국	중국	일본
		
강화 반닫이	서 탁	Kazari-dansu ²²⁾
출처 : 김삼대자, 전통 목가구, 대원사, p.39	출처 : 中國明清家具目録, 南方出版社, p.137	출처 : Kazuko Koizumi, Traditional Japanese Furniture, p.40
풍혈구조의 기본형	탁니 구조의 형성	전통가구의 분할 형
		
머릿 장	진 열레	Kunuma-dansu ²³⁾
출처 : 정대영, 한국의 장, p.143	출처 : 中國明清家具目録, 南方出版社, p.338	출처 : Kazuko Koizumi, Traditional Japanese Furniture, p.33
풍혈구조의 마대형	탁니 구조의 형성	바퀴구조의 일본 단스

21)이종석, 한국의 목공예(上), 열화당, 1993, pp.77~78

12)홍민정, Op. cit., p.15

13)다양한 풍혈의 의미 중, 본 연구에서는 ‘장이나 농의 다리부분에 통풍이 되도록 트인 공간이나 꾸밈새’의 의미를 갖는다.

14)목조 건축물의 가구(架構)를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기둥과 보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을 보강해주는 부재이다.

15)김광렬, 조선조 목가구의 풍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1988, p.11

16)굴곡이 심한 동물형 다리의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였다.

17)구조적으로 가구의 전체 무게를 지탱해주는 주재와 같이 강한 성질의 각재나 원재를 서로 짜맞추는 구조를 의미한다.

18)이은주, 중국가구에 나타난 아자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1997

19)판재로 이루어진 아자를 의미한다.

20)비교적 작게 체재한 각재나 원재들의 장부짜임으로 이루어지는 아자로, 짜여진 구조 자체로도 문양과 같은 장식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식이다.

종합적으로 바닥재에 연계시켜 본 한·중·일 전통가구의 다리 구조나 형태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바닥재인 장판은 바닥에 고정되어 사용되어지는 한국 전통가구의 대부분이 온돌의 구조에 따른 열과 습도 등의 대류현상을 이루게 하는 특성에 의해서 풍혈구조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풍혈'에 해당하는 '아자'가 있어 입식생활의 주 발달가구인 의자·탁자·침대 등에 사용되었다. 이는 구조 보강의 기능과 더불어 장식을 위한 장식부재를 따로 덧붙이지 않고 기능을 가진 구조부재 위에 미적 가공을 더하여 기능과 미의 이중적 효과를 거두게 한 것으로 한국과의 유사성을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전통 주거 공간의 바닥재인 석판이나 흙으로 된 판에 의해 마모되거나 부서지기 쉬운 빈번한 사용의 입식가구, 주로 의자에서 나타나는 유소요형의 탁니 구조의 형성은 한·중·일 삼국 중 중국의 전통가구만이 갖는 상이성이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전통가구에 다리의 구조가 생성되어 있지 않다. 이는 실용적 측면에서 일본의 수납가구가 필요에 따라 포개 사용하는 용도를 지니는 점과 더불어, 공간을 구성하는 일본만이 갖는 다다미의 특성에 따라 안정적 배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자연환경 특성인 지진이나 화재 등의 재해를 피하거나 장소의 이동을 위하여서 바퀴가 형성되어있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를 <표 1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1> 실내 공간 바닥재와 전통가구 구조 특성의 연계성

	한 국	중 국	일 본
실내공간 바닥재	온돌 장판	석판, 흙판	다다미
전통가구 반영 방식	풍혈구조	아자(牙子) 연계 탁니[足遣] 구조의형성	다리 부재·이동성
형성요인	온돌의 대류현상	입식가구의 견고성	탄력성의 안정적 배치 공간의 규격성에 따른 용도

이렇듯 삼국을 비교하여 볼 때, 다리의 구조만으로도 상대적 비교를 통한 상이성에 의해 각국의 독자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통가구 중 가장 다양한 발달을 보인 수납가구의 특성을 실내공간 맥락에서 비교 분석하여 그 유사성과 상이성을 밝히고자 한 본 연구는 2단계로 진행되었다.

시각적 조형이 강한 입면성 측면에서는, 실내공간 입면의 주요 구성요소인 삼국 창호의 대표적 창살 형태를 전통 수납가구의 전면성에 반영된 예를 찾아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한국의 단순하면서도 아기자기한 아자형 창살이 갖는 선과 면의 분할 비례미의 요소는 가구의 전면에 적극 반영되어 강한 연계성을 지님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실내공간을 구획하는 주요한 요소인 강한 기하학적 구성의 쇼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격자 형태의 패턴이 가구의 전면에 적극 반영되어 판재에 각재를 덧붙이는 이중구조적 특성과 더불어 일본 특유의 조형미로 발전함을 알 수 있었다. ¹

실내공간의 바닥재와 가구구조 특성 비교에서는, 양국 바닥의 구조와 재료의 특성 차이에 따라 전통 수납가구의 다리 형성 구조가 전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온돌 구조의 대류현상을 고려한 바닥재료가 장판인 한국의 경우는 바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풍혈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바닥재인 석판이나 흙판의 특성에 의해 마모되거나 부서지기 쉬운 빈번한 사용의 입식가구로 아자구조의 탁니 구조는 중국만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다다미의 탄력성을 갖는 특성으로 균형을 위한 안정감을 주기위해 다리구조의 형성 자체를 자제하는 상이성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실내공간 맥락에서의 한·중·일 전통가구 비교를 통하여, 삼국의 실내공간 요소가 전통가구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나 반영되어 나타나는 형태는 각국의 독자적 형태의 조형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삼국의 전통 수납가구 자체의 단순한 비교 분석이 아닌 실내공간과의 관계성을 찾아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구체화 시킬 수 있었고,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전통가구의 특성을 실내공간 맥락에서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문화란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이웃국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점점 관심이 고조되는 동양 문화의 독자적인 정체성 확립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Koji Yagi, A Japanese Touch for Your Home, Kodansha International, 2003.
2. David Jackson & Dane Owen, Japanese Cabinetry: The Art & Craft of Tansu. 2002
3. Sarah Handler, Austere Luminosity of Chinese Classical Furniture. Univ. of California Press, 2001
4. Kazuko Koizumi, Traditional Japanese Furniture. Kodansha International, 2001.
5. 中村幸男, 郡中町家物語, アトラス出版, 2001.
6. 李宗山, 中國家具史圖說, 湖北美術出版社, 2000

22)장식용 선반 전열장
23)이동성 수납장

7. Shixiang Wang, Kai-yin Lo, Classical and Vernacular Chinese Furniture in the Living Environment, 1998
8. 중국고전 가구학회 편저, Journal of The Classical Chinese Furniture society, California: Musium of Classical Chinese Furniture, 1993
9. Rosy Clarke, Japanese Antique Furniture: A Guide to Evaluating and Restoring. 1991
10. Edward Reynolds Wright. Man Sill Pai, Korean Furniture, Kodansha internationsl, 1984,
11. Sandra Lok Fu Chin, Classical Chinese Wood Furniture. Sanfrancisco Craft & Folk Art Musium, 1992
12. 정수원, 일본 문화 이해와 연구, J&G, 2003.
13. 손세관, 깊게 본 중국의 주택, 열화당, 2001
14. 손세관, 넓게 본 중국의 주택, 열화당, 2001
15. 梅掉忠夫 著, 김양선 譯, 일본인의 생활, 해안, 2001.
16. Samuel P Huntingot 著, 김찬동·소순창 譯, 문명의 충돌과 21세기 일본의 선택, 김영사, 2001
17. 윤장섭, 일본의 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18. 박영순외, 우리 옛집 이야기:한국 전통주택의 실내공간, 열화당, 1998
19. 이어령, 한·일 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 신구미디어, 1993.
20. 김규택, 한일 문화 비교론 : 님은 뿌리 다른 문화, 문덕사, 1993
21. 배만실, 한국 목가구의 전통 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8
22. 西和夫 著, 이무희·진경돈 譯, 일본 건축사, 세진사, 1983
23. 이원식, 생활행위별 한·중·일 전통주거의 공간 이용 특성에 따른 비교 문화연구, 연세대학교, 2002
24. 최선은, 조선후기와 에도시대 전통 복식의 조형적 특성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2001
25. 권영걸, 韓·中·日 전통공간의 조영정신과 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1
25. 홍민정, 일본·에도 메이지시대의 목가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00
26. 김연경, 동서양 전통적인 주택양식의 실내공간 특성, 연세대학교, 2000
27. 박지연, 한국·중국·일본의 전통창살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1999
28. 안지윤, 한국과 일본의 전통주택의 조형성에 대한 의식조사, 연세대학교, 1998
29. 강희수, 조선조 가구중 농에 나타난 의장 요소의 분석, 연세대학교, 1991
30. 박선희, 조선시대만가의 주생활과 공간사용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박사 논문, 1991
31. 권봉희, 조선가구의 짜임새 구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1985.

<접수 : 2004. 8. 31>